

## 한국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김경미 · 문지혜 · 정순진 · 이상미\*\*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최근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 농업분야 선진국에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고 있는 치유농업(Agro-healing)의 개념을 정립하였고,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해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치유농업 선진국의 정책과 제도, 조직, 관련 법, 인력 등에 대한 문헌분석(내용분석)을 하였으며, 농업, 건강, 교육, 원예 및 동물 매개 치료, 민간, 농업정책 집행 분야별 전공 교수, 연구원, 대표 및 담당자 9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또한 치유농업 분야 종사자 1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개념은 '농업·농촌자원(식물, 동물, 농촌환경, 농촌문화)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물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신체적·인지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정립된 개념과 연계하여 치유농업의 목적, 자원, 대상을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치유농업, 녹색치유

\* 이 논문은 2013년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전략개발)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PJ009887),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2013. 11. 8)에서 발표한 '한국 치유농업의 개념적 정의와 유형 분류를 통한 활성화 전략'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이상미) 전화: 031-290-6129; email: sangmilee@rda.go.kr  
441-4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540-4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 1. 서론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비롯한 농업분야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Hassink, 2003; Hassink & van Dijk, 2007; Sempik, Hine & Wilcox, 2010; Parsons 외, 2010; Sempik & Aldridge, 2006).

유럽의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국가별 치유농업의 개념, 목적, 영역, 대상 등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치유농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활성화되어 농산업의 주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치유농장은 학교나 지역사회, 병원 등과 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치료자원을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며 농장의 소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Dessein & Bock, 2010; Di Iacovo & O'Connor, 2009; Hine 외, 2008).

국내에서도 최근 농업의 트렌드는 관광농업의 단계를 넘어 국민의 건강과 농업체험을 연계하는 치유농업으로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또 새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가 탄력을 받으면서 농업과 농촌에 창조를 담는 6차 산업화 추진과정에서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농업체험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수렴할 필요성과 사회경제적 함의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의 정서함양이나 휴양기능, 체험학습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사례연구를 포괄하는 개념적 접근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치유적 활동 혹은 논의에 종합적으로 접근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지원방안도 미미하다. 실제 개별 농장 또는 치유 관련 자격 보유자 등을 중심으로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현황이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에서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치유농업의 국내 정착과 발전을 위해 사용할 기초자료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 정책수립, 운영 등에 시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농업 선진국들의 치유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치유농업의 현황 및 요구분석을 토대로 향후 치유농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국외 치유농업의 정의 및 유형

유럽 등 외국에서는 ‘치유농업’을 치유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녹색치유농업(green care farming), 건강을 위한 농업(farming for health)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본질적으로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활용(using farming to provide care)’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Hassink, 2003; Hassink & van Dijk, 2007; Sempik, Hine & Wilcox, 2010; Hine 외, 2008).

치유농업은 농장 및 농촌경관을 활용하여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의학적·사회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정신질환자, 학습장애인, 약물중독자,

사회적인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농업활동이다. 치유농업은 농장주, 건강보호기관, 사회보호기관, 프로그램 참여자 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농업을 통해 건강, 사회적 이익, 교육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치유농업은 Sempik, Hine & Wilcox(2010)등이 분류한 녹색치유우산(green care umbrella)에 따르면, 녹색치유(green care)의 세부 영역에 해당한다. 녹색치유의 영역은 사회적·치료적 원예, 동물보조개입, 치유농업, 치료로서 녹색 운동, 에코세라피, 야생(자연)치료로 구분한다.



자료: Sempik, Hine & Wilcox(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p,27.

〈그림 1〉 녹색치유의 영역: 녹색치유우산(green care umbrella)

녹색치유는 자연의 활용 및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영역별로 구분하기도 한다(Haubenhofer 외, 2010). 녹색치유와 자연과 관계 모델에 따르면 자연환경은 수동적 상호작용과 적극적 상호작용의 2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2가지 영역은 다시 자연관찰, 자연활동, 자연조성, 동물교감의 4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다. 또 각각의 세부영역은 활동의 정도에

따라 일상적인 활동, 건강증진, 치료, 일 복귀의 4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목적에 따라서는 치유농업 유형을 치유중심, 고용중심, 교육중심의 치유농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유 중심 치유농업의 목적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치유농장은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이다(Di Iacovo & O'Connor, 2009). 이 유형은 치유서비스 제공 이외에 전문적 교육, 훈련, 개인 지원을 제공하지만, 노동시장으로의 연계나 고용의 목적을 두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건강기관, 복지기관, 농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보상을 받는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치유농장(care farms), 독일과 아일랜드의 보호 작업장(sheltered workshops),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치료농장(therapeutic farms), 이탈리아의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type A co-operatives)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고용 중심 치유농업의 목적은 고용과 노동시장의 연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유형이다(Di Iacovo & O'Connor, 2009). 이 유형은 치유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지 않으며, 국가의 건강시스템으로부터 비용을 지불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회 및 노동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으며, 농장의 주 운영수입은 농업생산에 있다. 프랑스의 근교도시 통합정원(peri-urban integration gardens), 아일랜드의 지역사회 정원(community gardens), 이탈리아의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type B co-operatives), 슬로베니아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교육 중심 치유농업은 정규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농장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농장으로 구분된다(Di Iacovo & O'Connor, 2009). 정규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농장의 목적은 농업활동이나 농촌 경관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일반적으로 1년에 1차례 이상 치유농장을 방문하여 수업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교육농장(pedagogical farms), 독일의 학교농장(school farms), 아일랜드의 캠프힐 학교(camphill schools), 이탈리아의 교훈농장(didactic farms) 등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농장은 학습장애, 법적 문제, 사회적 조치에 따른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이다.

〈Table 1〉 치유농업의 유형

구분	치유 중심 (care oriented)	고용 중심 (employment oriented)	교육 중심 (education oriented)
목적	·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훈련 제공을 통한 고용과 노동시장의 연계	· 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 충족
대상	·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 사회적 약자	· 정규학교 학생 · 학습장애, 법적문제, 사회적 조치에 따른 사람들
특징	· 건강기관, 복지기관, 농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보상	· 사회 및 노동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 · 종장의 주 운영수입은 농업생산	· 농업활동이나 농촌경관에 대한 경험 제공
사례	· 네덜란드/벨기에 치유농장 (care farms) · 독일/아일랜드 보호작업장 (sheltered workshops) · 프랑스/아일랜드 치료농장 (therapeutic farms) · 이탈리아 A유형 사회적 협동조합 (type A co-operatives)	· 프랑스 근교도시 통합정원 (peri-urban integration gardens) · 아일랜드 지역사회 정 (community gardens) · 이탈리아 B유형 사회적 협동조합 (type B co-operatives) · 슬로베니아의 사회적 기 (social enterprises)	· 프랑스 교육농장 (pedagogical farms) · 독일 학교농장 (school farms) · 아일랜드 캠프힐 학교 (camphill schools) · 이탈리아 교훈농장 (didactic farms)

자료: Di Iacovo외(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p.35-37 재구성.

치유농업은 또 농업 생산(farming product)과 치유(care)의 2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Hine 외, 2008; Sempik, Hine & Wilcox, 2010). 농업 측면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농업활동(작물, 원예, 가축축산, 농기계, 산림경영 등)이 제공되며, 치유 측면에서는 건강치유, 사회적 재활, 교육 활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제공되는 프로그램 종류, 참가자 집단,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자료: Hine 외(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p,36.

〈그림 2〉 치유농업의 영역

농업생산 중심 치유농업과 치유 중심 치유농업은 영역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Hine 외, 2008). 농업생산 중심의 치유농업은 농장주의 주도로 전원의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을 통해 치유가 이루어지고, 치유 중심의 치유농업은 외부기관이나 자선단체와 연계된 농장에서 치료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농업과 치유 활동이 이루어진다.

〈Table 2〉 치유농업의 운영형태

구분	농업생산 중심 치유농업	치유 중심 치유농업
농장형태	· 독립적인 개인 농장	· 외부기관(교도소, 치료기관, 학교, 병원, 치유기관, 자선단체 등)과 연계된 농장
참여자 및 요구	· 농업 시스템의 일부로서 참여자 · 농업 및 치유 관련 체험 요 (스트레스 회복 등)	· 농업과 독립적인 참여자 · 완벽한 육체적 자활 요구(약물/알콜 남용 치료 등) · 치유와 관련된 일정 수준의 지원에 대한 요구(청소년, 유아, 정신건강 등)
기능	· 농장이 필요한 다기능	· 농장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다양성
주요 수입원	· 농업생산	· 치유
참여자 규모	· 소규모	· 대규모
치유 형태	· 긴장완화	· 치료
지역	· 전원 중심	· 전원 + 도시
주도자	· 농장주	· 치료사

자료: Hine 외(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재구성

## 2.2. 국외 치유농업 관련 정책

### 2.2.1.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정책

치유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치유농업과 관련된 강력한 국가적·지역적 네트워크가 있으며, 건강, 복지, 운동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농림자원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의 정부기관,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er), 지역조직, 치유기관 조합 등에서 치유농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European Communities, 2010).

네덜란드는 건강·복지·운동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



림자원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Nature and Food Quality)는 치유농업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치유농업 진흥을 목적으로 비영리기관인 국가지원센터(National Support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치유농장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치유농장주협회(Association of Green Care Farmers)와 지역 집단(regional groups)을 운영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10).

네덜란드는 국가지원센터 주도로 질 관리체계(Quality system)를 개발하여 치유농장주, 치유농장협회, 정부부처를 포함한 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질적 기준을 충족한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품질보증마크(Hallmark)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 국민건강보험(AWBZ)과 연계하여 승인을 받은 치유농장에 대해 공식적인 건강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과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Hassink & van Dijk, 2007).

### 2.2.2. 벨기에의 치유농업 정책

벨기에는 농림수산식품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치유농업 지원센터(The Flemish Support Centre for Green Care), 지역수준 지원기관 등에서 치유농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European Communities, 2010).

치유농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촉진을 목표로 민간기관 형태의 치유농업 지원센터(The Flemish Support Centre for Green Care)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치유농업 정보 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강의, 워크숍, 연구회,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10).

또 농업인교육훈련센터(Farmer's Training Centre)를 통해 치유농업

도입과 운영에 대한 교육과정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과 사회적 치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말치유 교육 프로그램, 동물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10).

### 2.2.3. 영국의 치유농업 정책

영국은 국가치유농업계획(National Care Farming Initiative)과 지역 개발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치유농업 계획 수립과 지역연계 체제 구축과 관련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한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치유농업계획을 수립하여 치유농업 개념 정립, 서비스 대상 설정, 홍보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지역연계 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치유농장 그룹을 형성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치유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10).

### 2.2.4. 프랑스의 치유농업 정책

프랑스에서는 치유농업을 농업의 사회적 기능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 프랑스는 치유농업의 교육적 기능, 치료적 기능, 사회통합 기능에 대한 역할 수행을 통해서 치유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역할과 효과 홍보를 통해 치유농장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European Communities, 2010).

프랑스는 농장주, 농장 직원, 지원기관, 전문인력 대상 치유농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치유농업의 확대와 치유농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수립과 지역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 구축하고 있다. 교육 영역 정책으로는 치유농업 제공자 대상 교육훈련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하고, 치유농업 제공자의 전문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물론,

치유농업을 전문적인 영역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Parsons, Wilcox, & Hine, 2010).

#### 2.2.5. 노르웨이의 치유농업 정책

노르웨이는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를 비롯한 정부부처, green care council,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유 농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젝트,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치유농업과 치유농장 활성화를 위해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교육연구부(Education and Research), 사회부(Social Affairs), 보건아동가족부(Health, Children and Family), 지역개발부(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Development)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림부에서는 녹색치유 서비스에 대한 컨설팅 제공, 치유농장 품질보장(quality-assurance) 도구 제공 등을 통해 치유농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Haugan, 2006).

또 치유농업 자문제도 운영, 품질 관리 및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운영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 산하에 치유농업을 위한 특별 위원회인 green care council을 통해 치유농업에 대한 자문, 예산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에서 치유농장의 서비스와 전문성에 대한 품질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다. 치유농장 협약 제도와 관련하여 치유농장과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Parsons, Wilcox, & Hine, 2010).

이상 살펴본 치유농업 선진국들의 치유농업 관련 정책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모두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치유농업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나라

도 있었다. 주로 농업 관련 정부기관에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었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별도의 치유농업 지원 조직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정부기관 차원의 치유농업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치유농업 관련 인력 및 기관이 포함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치유농업 선진국들은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협회를 구성하여 농장 운영이나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농장직원, 지원기관, 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히 협력하고 있었다. 국내 치유농업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치유농업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는 치유농업 제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벨기에는 민간기관 형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치유농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 워크숍, 연구회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치유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농장주와 치유농업 제공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제공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의 효과 검증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이 외에도 치유농업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법, 치유농업 품질 관리 체계, 예산 확보 등과 관련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연구방법

#### 3.1.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문헌연구를 통해서 작성된 치유농업 개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하였다. 작성(안)에 대하여 전문가 포커스 그룹에서 제시한 치유농업의 개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조사에 사용할 조사영역 및 문항개발에도 활용하였다.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에 참석한 대상은 농업, 건강, 교육, 작업치료, 동물치료, 민간, 정책집행 분야별 전공 교수, 연구원, 대표 및 담당자 9인이었으며 <Table 3>과 같다. 전문가 포커스 그룹에서 주요하게 검토한 내용은 치유농업 개념, 용어, 목적, 영역, 유형, 구성요소, 전략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연구진에서 제안한 치유농업 개념(안)의 내용 요소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Table 3>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 및 검토 내용

분야	대상	인원	검토 내용
농업	원에 및 화훼 전공 교수	2인	• 치유농업 개념, 목적, 자원, 대상, 전략 정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설문조사에 포함될 설문영역 및 문항 검토
건강	건강 전공 교수	1인	
교육	농업교육 전공 연구원	1인	
작업치료	작업치료 전공 교수	1인	
동물치료	동물치료 관련 대표	1인	
민간	교육농장 및 사회복지 관련 담당자	2인	
정책집행	농업기술원 지도사	1인	
계		9인	

### 3.2. 설문조사

문헌연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을 통해 수정한 내용을 토대로 치유농업 개념, 목적, 자원, 대상, 전략의 우선순위 및 치유농업 관련 요구에 대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2013년 10월 1일에서 30일까지 우편 및 방문조사를 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치유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요 대상으로 원예치유와 동물매개치유 활동 전문가 그룹, 농업체험프로그램, 교육농장, 관광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 1,321명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165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무응답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09명의 응답결과를 최종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치유농업의 개념 정립

치유농업의 개념은 문헌분석을 통해 초안을 개발하고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최종 안을 개발하였다. 문헌분석을 통해 개발한 치유농업의 개념은 '농업 자원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제시된 의견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치유농업 개념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의견	반영 내용
치유농업에 활용하는 자원을 농업자원보다 농촌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제시	내용변경: 농업자원 →농업·농촌자원
구체적인 자원 뿐만 아니라 농작업 활동이나 음식과 같은 농산가공물 등의 산출물을 함께 제시	내용 추가: 활동 및 산출물
국민의 건강이라는 표현보다 치유행동의 구체적인 효과영역을 고려하여 제시	내용변경: 건강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
치유농업을 단순한 활동이 아닌 치유행동과 관련된 산업과 인력, 활동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제시	내용변경: 활동 →산업 및 활동

이상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치유농업의 개념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 4.2. 치유농업의 목적 설정

치유농업의 목적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①치유(신체적·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서비스 제공), ②교육(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학습장애, 행동문제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제공), ③사회적 재활(사회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활서비스 제공)의 3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치유농업의 목적 중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1순위로 교육이라는 응답자가 46.8%(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유 41.3%(45명), 사회적 재활 11.9%(1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목적은 교육 및 치유를 우선순위로 두고 사회적 재활 및 기타 치유활동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치유농업 목적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구분	치유농업 목적					
	치유		교육		사회적 재활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1순위	45	41.3	51	46.8	13	11.9
2순위	38	34.9	42	38.5	29	26.6
3순위	26	23.9	16	14.7	67	61.5

#### 4.3. 치유농업 활용 자원 설정

치유농업의 활용 자원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식물, 동물, 농산가공물, 농작업장(논, 밭, 시설, 축사 등), 농촌 환경 및 경관(산, 들, 강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치유농업 활용 자원에 대하여 식물은 109명 전체가 활용한다고 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원이었다. 다음은 농작업장(59.6%), 농촌환경 및 경관(53.2%), 농산가공물(40.4%), 동물(16.5%)의 순이었다. 따라서 치유농업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은 식물, 동물, 농산가공물, 농작업장, 농촌 환경 및 경관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식물, 농작업장, 농촌 환경 및 경관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6〉 치유농업 자원 활용 실태 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백분율(%)
식물	109	100.0
동물	18	16.5
농산가공물	44	40.4
농작업장	65	59.6
농촌 환경 및 경관	58	53.2

주) 전체 응답자 : 109명, 백분율 : (빈도/전체 응답자)×100

#### 4.4. 치유농업 대상 설정

치유농업 대상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일반적인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유아, 초등생, 중·고생, 성인, 노인)과 특별한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문제행동 청소년, 신체적 환자, 사회심리적 환자, 알콜/약물 중독자, 장애인, 수감자, 실업자,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치유농업 대상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생 68.8%, 성인 66.1%, 장애인 59.6%, 중·고생 56.0%, 문제행동 청소년 56.0%, 소외계층 41.3%, 신체적 환자 36.7%, 유아 34.9%, 사회·심리적 환자 30.3%, 다문화 가정 30.3%, 알콜·약물 중독자 20.2%, 수감자 12.8%, 실업자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치유농업은 일반적인 치유서비스와 특별한 치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일차적으로는 유아, 초등생, 중·고생, 성인, 노인 등 일반적인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핵심 대상으로 하되, 문제행동 청소년, 신체적 환자, 사회·심리적 환자, 알콜·약물 중독자, 장애인, 수감자, 실업자,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의 특별

한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차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치유농업 대상 실태 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백분율(%)
일반적인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유아	38	34.9
	초등생	75	68.8
	중·고생	61	56.0
	성인	72	66.1
	노인	77	70.6
특별한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문제행동 청소년	61	56.0
	신체적 환자	40	36.7
	사회·심리적 환자	33	30.3
	알콜·약물 중독자	22	20.2
	장애인	65	59.6
	수감자	14	12.8
	실업자	9	8.3
	소외계층	45	41.3
다문화 가정	33	30.3	

주) 전체 응답자 : 109명, 백분율 : (빈도/전체 응답자)×100

#### 4.5. 치유농업 활동 설정

치유농업 활동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강의, 치유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치유농업 관련 상담활동, 치유농업 관련 치료활동, 치유농업 관련 가공물 생산 및 판매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치유농업 활동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 치유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88.1%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유농업 관련 치료 활동(69.7%),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강의(68.8%), 치유농업 관련 상담 활동(37.6%), 치유농업 관련 가공물 생산 및 판매(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치유농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일차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치료 활동, 교육 및 강의를 통해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가적으로 상담 활동, 가공물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통해 치유농업의 활동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치유농업 활동 실태 분석 결과

구분	빈도(명)	백분율(%)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강의	75	68.8
치유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	96	88.1
치유농업 관련 상담 활동	41	37.6
치유농업 관련 치료 활동	76	69.7
치유농업 관련 가공물 생산 및 판매	18	16.5

주) 전체 응답자 : 109명, 백분율 : (빈도/전체 응답자)×100

#### 4.6. 치유농업 전략 수립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조직 전략(치유농업 전담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대), 제도 전략(치유농업 관리체계 및 보상제도 구축), 인력 전략(치유농업의 질관리 및 고용창출을 위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전략(치유농업 교육센터 지정 및 커리큘럼 개발), 연구개발 전략(치유농업 연구개발 추진 체계 구축 및 과제 수행), 법·예산 전략(치유농업 관련 법 제정 및 재정 확보)의 6가지로 설정하였다.

〈Table 9〉 치유농업 전략 수립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결과

치유농업 전략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조직 전략 (치유농업 전담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대)	44	40.4	26	23.9	13	11.9
제도 전략 (치유농업 관리체계 및 보상제도 구축)	13	11.9	34	31.2	6	5.5
인력 전략 (치유농업의 질관리 및 고용창출을 위한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13	11.9	18	16.5	18	16.5
교육 전략 (치유농업 교육센터 지정 및 커리큘럼 개발)	14	12.8	15	13.8	37	33.9
연구개발 전략 (치유농업 연구개발 추진 체계 구축 및 과제 수행)	5	4.6	8	7.3	19	17.4
법·예산 전략 (치유농업 관련 법 제정 및 제정 확보)	20	18.3	8	7.3	16	14.7
계	109	100.0	109	100.0	109	100.0

이러한 치유농업 활성화 전략 중 우리나라에서 추구해야 할 목적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 결과, 1순위로 치유농업 전담조직 구축 및 치유시설 확대와 관련된 조직 차원의 전략이라는 응답자가 40.4%(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유농업 관련 법·예산 차원의 전략 18.3%(20명), 치유농업 관련 교육 차원의 전략 12.8%(14명), 치유농업 관련 제도 차

원의 전략 11.9%(13명), 치유농업의 인력 차원의 전략 11.9%(13명),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차원의 전략 4.6%(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전담 조직 구축, 지역수준의 치유농업 담당기능과 인력 확보, 치유농업 관련 단체, 협회, 협의체, 지부 구성,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립, 치유시설 확보 및 확대, 치유농업 관련 부처의 협조 확보 등과 같은 조직 차원의 전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치유농업 선진국의 사례 분석과 국내 치유농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내 치유농업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그동안 원예치유, 동물치유, 산림치유 등 다양한 개념들이 혼재했지만 이를 통합하여 치유농업의 개념을 정의한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치유농업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 농업, 건강, 교육, 작업치료, 동물치료, 분야별 교수, 연구원, 민간단체 대표 및 정책집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치유농업 관련 농장주, 프로그램 운영자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활용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개념은 '농업·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한 활동 및 산출물을 활용한 치유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었다.

둘째, 치유농업의 목적은 ‘교육’ 및 ‘치유’를, ‘사회적 재활 및 기타 치유활동’보다 우선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유농업의 중점적인 목적을 치유농업을 통해 정규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학습장애, 행동문제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적 목적과 신체적·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적 목적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치유농업 활용 자원은 식물(100.0%), 농작업장(59.6%), 농촌 환경 및 경관(53.2%), 농산가공물(40.4%), 동물(16.5%)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 농촌자원, 식물, 동물이 모두 치유농업의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식물, 농작업장, 농촌 환경 및 경관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치유농업 대상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 7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초등생 68.8%, 성인 66.1%, 장애인 59.6%, 중·고생 56.0%, 문제행동 청소년 56.0%, 소외계층 41.3%, 신체적 환자 36.7%, 유아 34.9%, 사회·심리적 환자 30.3%, 다문화 가정 30.3%, 알콜·약물 중독자 20.2%, 수감자 12.8%, 실업자 8.3%의 순이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치유농업의 주요 대상으로 유아, 초등생, 중·고생, 성인, 노인 등 일반적인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하고, 문제행동 청소년, 신체적 환자, 사회·심리적 환자, 알콜·약물 중독자, 장애인, 수감자, 실업자,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의 특별한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차적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치유농업 활동은 치유농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운영(88.1%), 치유농업 관련 치료활동(69.7%),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강의(68.8%), 치유농업 관련 상담 활동(37.6%), 치유농업 관련 가공물 생산 및 판매

(1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유농업의 주요 활동으로는 일차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치료 활동, 교육 및 강의를 통해 치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유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섯째,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조직 차원 전략(40.4%), 법·예산 차원 전략(18.3%), 교육 차원 전략(12.8%), 제도 차원 전략(11.9%), 인력 차원 전략(11.9%), 연구개발 차원 전략(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 전담 조직 구축, 지역수준의 치유농업 담당기능과 인력 확보, 치유농업 관련 단체, 협회, 협의체, 지부 구성, 치유농업 정착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립, 치유시설 확보 및 확대, 치유농업 관련 부처의 협조 확보 등과 같은 조직 차원의 전략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 5.2. 제언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진국은 치유농업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치유농업은 아직 시작단계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치유농업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치유농업 관련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의 치유농업 관련 현황 조사가 처음 이루어졌을 정도로 아직 치유농업과 관련된 연구나 정책,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센터 등의 농업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치유농업 관련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6차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하고 있

다. 치유농업 역시 6차산업의 한 분야로 법 제정시 치유농업의 개념과 영역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치유농업 실태 및 요구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치유농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였으나 이들이 우리나라 치유농업 산업과 인력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치유농업 정책수립,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지원, 질 관리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요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주로 원예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유농장에서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장의 소득 자원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를 통해 농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치유농업의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원예치료 분야의 치유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 중 식물이라는 한 가지 자원일 뿐 농작업 활동, 동물, 농촌경관 등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치유농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 Berget, B., Braastad, B., Burls, A., Elings, M., Hadden, Y., Haigh, R., & Haubehofer, D. K. (2010). Green Care: a Conceptual Framework. A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Health Benefits of Green Care.
- Dessein, J., & Bock, B. (2010). *The Economics of Green Care in Agriculture*. Loughborough University.
- Di Iacovo, F., & Vadnal, K.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D. O'Connor (Ed.). Arsia-Agenzia Regionale per lo Sviluppo e l'Innovazione nel settore Agricolo-forestale.
- European Communities. (2010). *Overview of Social Farming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NRN Joint Thematic Initiative on Social Farming*. Brussel: EC.
- Haubehofer, D. K., Elings, M., Hassink, J., & Hine, R. E. (2010). The development of green care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and Healing*, 6(2), 106-111.
- Hassink, J. (2002, April). Combining agricultural production and ca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 new role of agriculture and farm animals. In *Farming and Rural Systems Research and Extension. Local Identities and Globalisation. Fifth IFSA European Symposium* (pp. 8-11).
- Hassink, J., & Van Dijk, M. (Eds.). (2006). *Farming for Health: Green-care farming acros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3). Springer.
- Haugan, L., Nyland, R., Fjeldavli, E., Meistad, T., & Braastad, B. (2006). Green care in Norway: Farms as a resource for the educational, health and social sector. *FARMING FOR HEALTH*, 109-126.
- Hine, R., Peacock, J., & Pretty, J. N. (2008). *Care farming in the UK: Evidence and Opportunities*. Report for the National Care Farmin Initiative (UK): University of Essex.
- Parsons, S., Wilcox, D., & Hine, R. (2010). *What care farming is*. Paper presented at the 9<sup>th</sup> European IFSA Symposium. Vienna, Austria.

Sempik, J., & Aldridge, J. (2006). Care farms and care gardens: horticulture as therapy in the UK. *Farming for Health*, 147-161.

*Received 10 November 2013; Revised 25 November 2013; Accepted 5 December 2013*

## Analysis on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gro-healing in Korea

Gyung Mee Gim · Jihye Moon, Sun Jin Jeong · Sang Mi Le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Top-dong, Gwonseon-gu, Suwon, Gyeonggi-do, 441-440, Republic of Korea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efinition of care farming in which advanced countries in agricultural industry such as Netherlands and Belgium increase their interest and investment, and established a strategy for settlement and development of care farming industry in Korea.

For achieving purpose of the study, literature review was implemented to analyze policy, system, related law, workforce of advanced countries in care farming, and experts' conference which consists of 9 representatives such as professors, researchers in areas of agriculture, health, education, horticulture, animal-assisted therapy was implemented. Also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165 people of practitioners in care farming industry.

For the result, the concept of care farming in Korea was defined as 'Industry and activity which promotes psychological · social · physical · cognitive health of every Korean people by utilizing agricultural resources(plants, livestock, rural environment, rural culture) or related activity and output', and the purpose, resources, targets of care farming was determined by the definition.

**key words** : Agro-healing, Care Farming, Green Care



Gyung Mee Gim is a senior scientist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education, extension service, gender studies of agriculture,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of urban agriculture.

Address: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441-440,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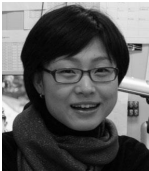
e-mail) gimgm@rda.go.kr, phone) 82-031-2906289



Jihye Moon is a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cultivating system of urban agriculture

Address: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441-440, Republic of Korea

e-mail) jhmoon@korea.kr, phone) 82-031-290-6216



Sun Jin Jeong is a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horticultural activity, indoor plants.

Address: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441-440, Republic of Korea

e-mail) sunjin75@korea.kr, phone) 82-031-290-6164



Sangmi Lee is a researcher of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horticultural therapy.

Address: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Gwonseon-gu, Suwon-si, Gyeonggi-do, 441-440, Republic of Korea

e-mail) sangmilee@korea.kr, phone) 82-031-290-6129